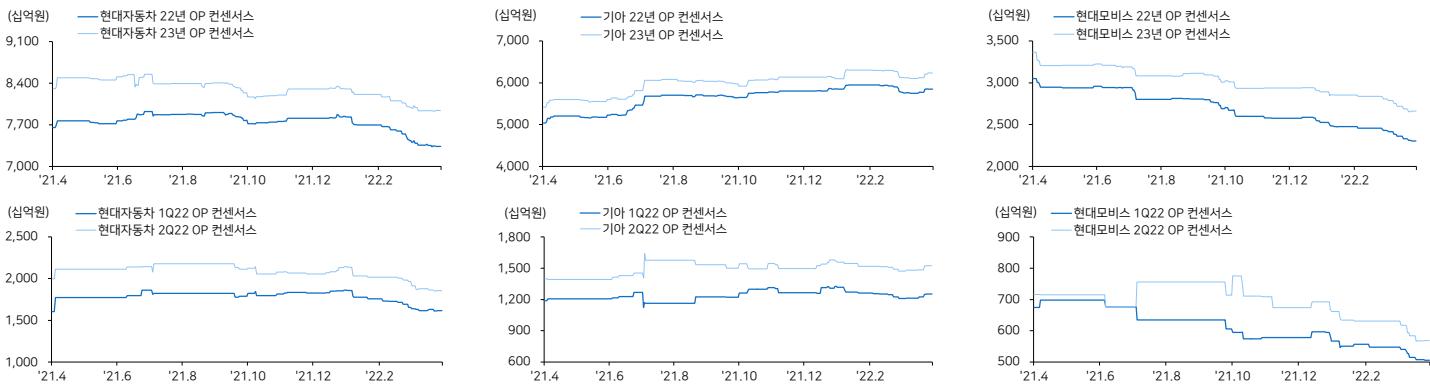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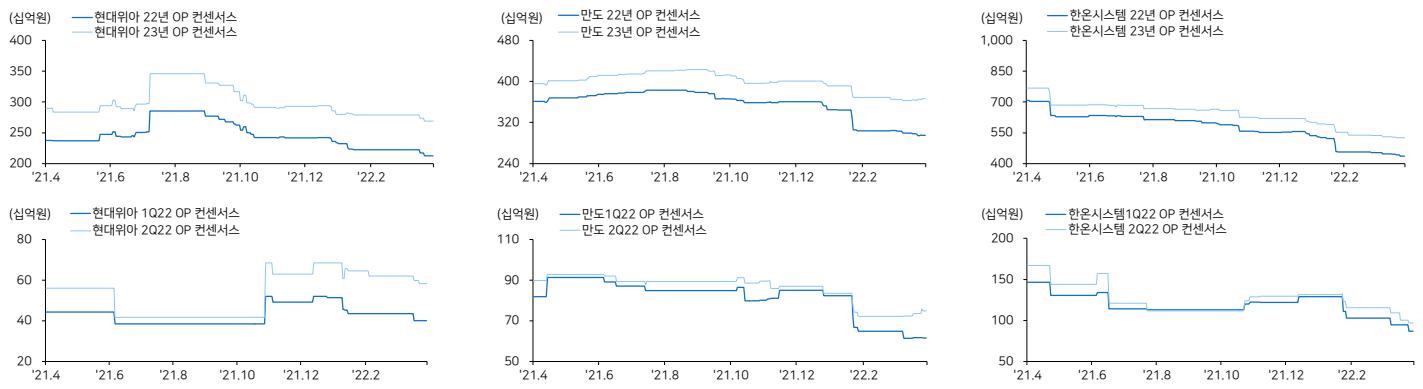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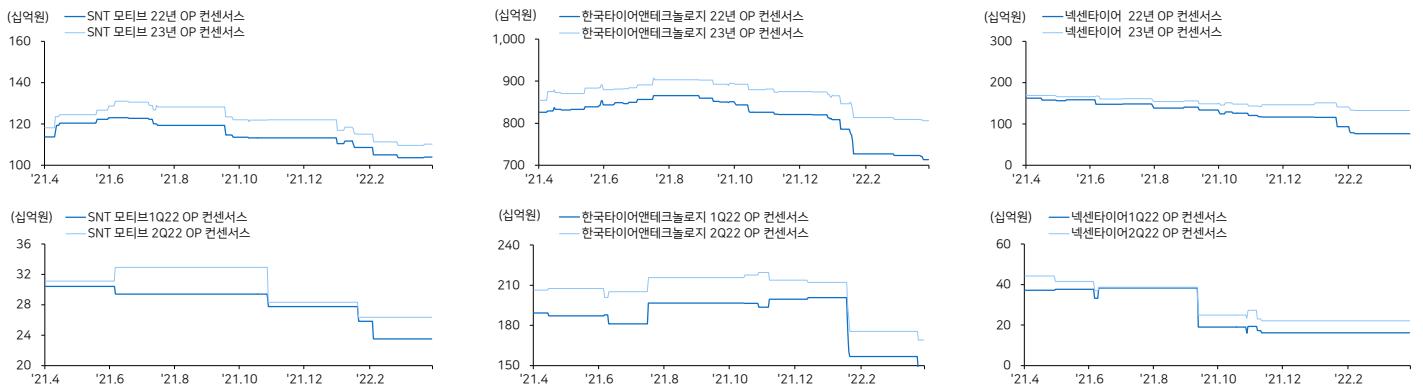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N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트요타, '반도체 부족'에 또 감산…5월 세계생산 10만대 줄인다 (머니투데이)

19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트요타는 5월 일본에서 20만대, 해외에서 55만대 등 총 75만대를 생산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연초 발표한 계획보다 10만대가량 줄어든 수치. 내달 일본 9개 공장의 가동을 최대 6일간 중단할 예정.
<https://bit.ly/3wK9x0>

미쓰비시, 배터리 소재 생산 두 배 늘린다…日 '脫중국' 풍세 겨냥 (전자신문)

19일 뉴캐이언은 미쓰비시 케이미쓰이 2023년까지 미국 전략적 공장 생산 능력을 3만4000톤으로 늘린다고 보도함. 기존 대비 갑질 많은 규모로 전기차 85만대분이며, 2만6000톤 수준인 일본 내 생산량을 웃도는 수준.
<https://bit.ly/3rZxt1B>

Tesla Shanghai plant resumes production, 8,000 employees return to work (CNEV Post)

Tesla는 약 일주일치 분량의 자동차 부품 재고가 있으며 직원 약 8,000명이 '폐쇄 루프' 모드로 생산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짐. 상해 국은 100개 이상의 공장업체가 생산을 재개하도록 적극 주선 중.
<https://bit.ly/36tugjd>

LG-Magna JV to build EV parts in Mexico for GM (Automotive News)

LG와 마그나 JV는 멕시코에서 GM에게 납품할 인버터, 모터, 운보드 충전기 부품공장을 생산할 예정. 공장 가동 시점은 2023년이며, GM은 같은 해에 멕시코 아리조나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
<https://bit.ly/38WvaB8>

"중고 전기차 매물 대비하자"… 배터리 진단 나서는 차업계 (조선비즈)

기아는 지난 18일 중고차사업 비전을 발표하며, 전기차 전용 품질검사와 인증체계를 자체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케이카도 전기차 배터리 진단을 위해 SK온과 업무 협약을 맺음. 중고차 시장에서 정확한 전기차 성능 파악 수요가 커지는 풍.
<https://bit.ly/3xV2AI0>

전기차업체 LFP배터리 사용 늘어날 전망, 한국 배터리3사에 먹구름 (비즈니스포스트)

대만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19일 "중국 배터리업체들이 LFP배터리 배터리 공급을 확대하고 있어 글로벌 배터리시장의 주류는 LFP배터리가 될 것이다"며 "2024년 글로벌 배터리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고 전망함.
<https://bit.ly/37oKpRj>

Volkswagen focuses on regions to reduce supply chain vulnerability (Reuters)

VW는 새로운 성장 계획이 공급망 중단/가격 인상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부터의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중국 사업 강화, 소프트웨어 부문 Cariad 성장, 스티어링 모델 대체성이 가장 최우선 사안이라고 언급함.
<https://reut.rs/3ExL2uA>

Soaring battery costs fail to cool electric vehicle sales (Reuters)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배터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전기차 판매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는 지속 상승하는 중. 이는 배터리 비용이 하락하여 내연기관차와의 Price Parity를 맞춰야 한다는 기준 업계의 통념과 다른 양상.
<https://reut.rs/3JYQw8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